

상생의 길 버리고 가시밭길 가는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 공장 침수 복구 중에 '고용승계 투쟁' 선언 사측, "해사행위 중단하라" 촉구 ... 지역 경제 우려도 커져

노·사 상생을 요구하는 지역사회 여론에도 불구하고 "법인통장 압류" 사태로 존폐 위기에 직면한 금호타이어와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는 단체교섭 결렬에 이어 '고용 승계 투쟁'을 선언했고, 금호타이어는 해사(解社)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또 금호타이어는 법인통장 압류로 오는 27일 예정된 직원들의 급여와 수당은 물론, 협력업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처지에 놓이면서 지역경제에도 비상이 걸렸다. 여기에 경영난을 이유로 도급업체가 계약 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이날까지 새 업체 모집에 나섰지만 지원한 업체가 단 한 곳도 없었다. 당장 이날 말까지 새 업체를 구하지 못하면 공장가동과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비정규직 직원들의 고용도 담보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6일 수급사협의회에 올해 단체교섭에 대한 결렬 선언과 함께 쟁의조정 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지난 7일에는 관할 경찰서에 '고용 3승계 투쟁 결의대회' 개최 집회신고를 했다.

금호타이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집중호우로 광주와 곡성공장이 침수피해를 입어 지난 8일 공장가동이 일시 중단됐고 주말 전 임직원들이 복구에 나서 겨우 정상가동에 들어갔다"며 "예상치 못한 폭우로 공장 정상화가 버거운 상황에서 투쟁 집회신고와 쟁의조정 신청 통보는 경영정상화 의지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행위"라고 밝혔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비정규직 노조가 지난달 30일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통해 법인통장을 압류당한 상태다. 도급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로 구성된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1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했고, 이를 근거로

임금차액과 그에 따른 이자 등 204억을 가압류해 금융거래가 중단되면서 지난 7월 말 직원들의 휴가비와 수당, 납품업체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했다.

금호타이어는 압류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외 신뢰도 하락에 이은 유동성 위기마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경영위기에 놓이게 된다. 오는 27일 직원들의 임금과 수당 지급도 어렵게 됐다. 이밖에 물품대금 지연 등으로 광주·전남 260여개를 포함한 전국 670여개 협력업체의 자금난과 줄도산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금호타이어 사내 도급업체 5곳은 오는 31일 이후로 도급 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청했고, 해당 업체는 비정규직 노조에 오는 31일자로 고용을 승계할 수 없다는 사실상 해고 예보를 통보했다.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고용 승계가 이뤄질 수 있지만, 문제는 코로나19 사태로 도급 물량이 줄어든 탓에 경영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계약하려는 업체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금호타이어는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한 협력업체를 대체할 도급 운영업체 모집공고를 냈으나, 마감일인 11일 이날까지 단 하나의 업체도 지원하지 않았다.

업체 선정이 지연되면 공장운영과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비정규직 직원들의 고용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고용안정을 이뤄내려는 비정규직 노조가 협상수단인 '법인계좌 압류'를 쉽게 풀어서 주지 않을 가능성은 더 커진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조와 금호타이어의 입장차는 쉽게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비정규직 노조는 사측이 정규직 전환 방안을 제시하기 전 압류를 풀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금호타이어는 항소심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1심 판결만 놓고 정규직화를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회사가 있어야 일자리도 유지하고 고용안정도 주장할 수 있다"며 "구성원들을 위해 존재·유지·발전시켜야 할 회사를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은 명백한 해사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비정규직 노조가 채권압류를 취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금호타이어에 관계자는 "회사가 있어야 일자리도 유지하고 고용안정도 주장할 수 있다"며 "구성원들을 위해 존재·유지·발전시켜야 할 회사를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은 명백한 해사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비정규직 노조가 채권압류를 취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백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18.67 (+32.29)	↓ 금리 (국고채 3년) 0.818 (-0.012)
↓ 코스닥 860.23 (-2.53)	환율 (USD) 1185.60 (0.00)

코스피 2년여 만에 2400선 돌파

7거래일 연속 상승세 ... 2418.67까지 올라

11일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코스피가 2년여 만에 24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2.29포인트(1.35%) 오른 2418.67로 마감했다. 코스피가 증가 기준으로 2400선을 넘어선 것은 2018년 6월 15일(2404.04)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일간 상승 기준으로는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외국인은 철강, 금융, 전기기사업 등 대형 경기 민감 주를 중심으로 순매수해

이날 상승을 주도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320억원의 순매수했고, 개인은 2452억원을 순매도했다. 기관은 344억을 순매수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53포인트(0.29%) 내린 860.23으로 종료했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은 2097억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376억원, 1571억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85.6원으로 보합 마감했다. /연합뉴스

집중호우로 채소값 폭등

상추·호박 등 크게 올라

삼겹살 등 축산물도 보합세

장마철 기록적인 폭우로 광주지역 주요 농산물의 공급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

1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지난 10일 기준 광주 양동시장 주요 농산물의 소매가격을 조사한 '얼마요' 2013호를 발행했다. 예상 밖에 길어진 장마로 상추와 호박 등 주요 채소류는 생육여건이 악화돼 출하물량이 감소했다.

이 영향으로 상추(100g) 가격은 2주 전보다 80%(800원) 급등한 1800원으로 조사됐다. 1년 전(1300원)에 비해서도 38% 가량 크게 올랐다.

애호박 1개 가격(1700원)도 2주 전보다 70%(700원) 올랐고, 배추(포기당 8000원), 무(개당 2500원), 풋고추(100g당 800원) 등도 14%에서 높게는 33% 넘게 상승했다.

과일의 경우 출하작업이 부진한 수박은 오름세를 보인 반면 이외 품목은 소비 둔화로 보합세를 나타냈다.

이날 수박 1개(10kg) 가격은 2만 2000원으로, 2주 전보다 47% 뛰고 1년 전보다는 22% 상승했다.

사과(10개·3만5000원)와 배(10개·3만3000원), 방울토마토(1kg·6000원) 등은 2주 전과 가격이 같았다. 포도 1kg 가격은 8000원으로, 품위가 낮아지고 소비가 줄면서 2주 전보다 3.6% 소폭 내려갔다.

삼겹살(100g·2190원), 한우등심 1등급(100g·8160원), 달걀(30개·4000원) 등 축산물은 2주 전과 가격이 동일했다.

aT 관계자는 향후 2주간 동향에 대해 "장마 및 태풍 영향으로 단기간 출하여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다, 이후 무더위가 예고되고 있어 생육부진에 따른 공급불안정이 예상된다"며 "과채, 열채류 등 채소류 대부분 품목이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콘진원 '수출 콘텐츠 현지화 일자리 지원' 사업 시작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은 콘텐츠 분야 일자리 지원을 위한 '수출 콘텐츠 현지화 일자리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수출용 콘텐츠 제작, 해외 마케팅, 현지어 번역, 해외정보 수집 등 콘텐츠 현지화 작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원 대상은 방송, 게임,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악, 이야기, 영화 등의 장르 가운데 즉시 해외수출 수요가 있거나 현지화 계획이

있는 기업이다. 선정된 약 80개 기업은 현지화 작업을 하는 신규 인력 2명 내외의 인건비를 최대 월 200만원까지 5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선정 시 수출계약을 체결한 기업, 취약계층 또는 청년층을 채용한 기업, 기업규모가 영세한 기업, 관련 분야 전공 또는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한 기업을 우대할 방침이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전남 기업들, 집중호우 피해복구 나섰다

광주은행·한전·농협 등 일손 돕고 성금 전달

지난 주말 내린 집중호우로 광주·전남 곳곳이 초토화되면서 지역 기업들도 피해 복구에 발벗고 나섰다.

광주은행 임직원 30여 명은 11일 복구 동원동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피해복구 일손을 도왔다.

이날 광주은행은 복지관에 제습기를 전달하고 토사로 뒤덮인 건물 안팎을 청소했다. 광주은행은 전남 '피해지원 종합상담반'을 꾸리고 피해복구를 위한 봉사단을 발대했다.

광주은행은 총 100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하고 호우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 특별 감면, 분할상환금 유예 등을 펼치기로 했다.

송중욱 행장은 "광주은행은 특별금융지원을 실시하는 등 지역의 집중호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며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과 한전KPS, 한전KDN 등 11개 그룹사는 수해복구를 위한 성금 10억원을 내놓았다.



송중욱(오른쪽 두번째) 광주은행장이 11일 광주시 복구 동원동 침수 피해지역 청소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한전 각 지역본부와 발전소는 해당 지역에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주택 침수지역 물빠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광주지역본부 등은 피해 농가에 무이자 대출을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농협중앙회는 호우 피해지원을 위해 해당 무이자자금을 5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전남본부는 11일 임직원 100여 명으로 '전남농협 긴급인력지원단'을 구성하고 구례를 찾아 농가 인력을 지원했다. 광주본부 임직원 30명도 이날 곳곳에서 봉사를 벌였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호우 피해기업에 대상으로 2%대 고정금리로 용자를 받을

수 있는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보증료는 0.5% 고정 보증료율을 적용하며, 사업체 소재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0.1%가 적용(소급 가능)된다.

지원대상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으면 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예능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0년 8월호

7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블루 투어, 전남 섬이 부른다

화제의 전시: DEEP DIVE INTO YOU

문화를 품은 건축물 ① 거대한 물방울 형상화 해양도시 부산의 랜드마크 국립해양박물관

예향이 만난 이 사람: '진정한 사랑법' 전한 자유와 소통의 철학자 강신주 '씻김굿'의 고향으로 돌아온 신임 국립남도국악원장 명현 '식물처럼, 살다' 펴낸 힐링 플랜테리어 전문가 김해란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최다홍런 기록 세운 나지완

특집

블루 투어, 전남 섬이 부른다

- 점점이 뿌려진 전남의 섬
- 매력 발산 전남 섬 '그 섬에 가고 싶다'
- 힐링 관광지로 사랑받는 국내외 섬 4곳

문화를 품은 건축물 ① 거대한 물방울 형상화 해양도시 부산의 랜드마크 국립해양박물관

예향이 만난 이 사람
'진정한 사랑법' 전한 자유와 소통의 철학자 강신주 '씻김굿'의 고향으로 돌아온 신임 국립남도국악원장 명현 '식물처럼, 살다' 펴낸 힐링 플랜테리어 전문가 김해란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최다홍런 기록 세운 나지완

예향 초대석

사마천 『사기』 펴내는 만화가 이희재
"이희재의 만화다움"을 읽어주세요

우리 땅 우리 문화 ②
월출산 자락 우뚝한 기운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화제의 문화현장
'새날새물짓' 그려가는 최진석 교수의 호접몽가

클릭, 문화현장 ⑩-하나는 '라운지1968' 컬처뱅크 복합문화공간 '시니어들의 아지트' 예감

문화 트렌드
외국인이 모국어로 가요 열창 '탑골 랩소디'의 변안곡 실험

전시 리뷰
광주시립미술관 <신소장품2019>전

배극남의 대중문화 X파일 ⑩
대중이 주도하는 밈 열풍의 본질과 명암

영복한 동행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⑥
우리집 반려동물 슬기로운 여름나기

여름에 더 설레는 곳, 여수 나만 여행
- 섬, 예술, 바다의 향기 - 물산장, 방종일, 애종숙